

### 공동체 소식



#### 연중 제22주일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느님, 저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으시어, 생생한 믿음으로 은총의 씨앗이 자라나,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소서.

#### 이번 주간의 성인축일

9/8(금): 동정 마리아 탄생 축일.

#### 2017년 본당 야외미사

- 일시 : 9/3(주일) 오전 11:00.
- 장소 : Shawnee Mission Park (Shelter 10), Lenexa, KS 66219

#### 본당 평일미사 및 신심미사 안내

- 평일 미사 : 화요일 - 저녁 7:30(성당), 수요일 - 저녁 7:30(성당), 목요일 - 오전 10:00(교육관).

#### 맨하탄 공동체 미사

- 일시 : 9/16(토) 오전 11:30

#### 애찬조 편성

- 내용 : 성당지하 주방 게시판 참조.

각 구역 반장님들은 반원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별히 전입 오신 분들에 대해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전례 성가

시 작	예 물	성 체	파 견
16	512	160	26

#### 주일미사 복사

	시중 복사	항 복사
금 주	김정원 안젤라	
차 주	문예나 요안나	문호진 안토니오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김주연 세실리아	홍순익 마르티노 최은미 아네스
차 주	김명은 안젤라	이우석 프란치스코 김인자 글라라

#### 애찬 봉사자

금 주	야외 행사
차 주	정연숙, 박동희, 김명희

#### 헌금 봉사자

금 주	김병철 베네딕도, 전용진 라우렌시오
차 주	김병철 베네딕도, 이내익 베드로

#### 우리들의 정성

	영성체	헌금	교무금
8/27	52명	224달러	300달러
박재천, 박주연, 차호섭 (총3세대)			

### 목자의 소리

“진리는 사랑에서 나온 것이기에 인간의 마음, 곧 각 사람의 인격적인 중심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신앙은 비타협적인 것이 아니며 서로를 존중하는 공존 속에서 자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믿는 사람은 거만하지 않으며 신앙은 그와 반대로 그를 겸손으로 이끕니다. 믿는 사람은 그가 진리를 소유하기보다는 오히려 진리가 그를 열싸안고 소유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빛, 34항’ 그림 임의준 신부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수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교육관)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 전용진 로렌스 703.785.0545 lawyjun@gmail.com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회 장: 이우석 프란치스코  
M: 816.616.0033

재 무: 김병철 베네딕도  
M: 913.710.0770



###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22주일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어,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십니다. 주님 말씀에 충실한 참제자로서 주님 마음에 드는 것만을 찾으십시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우리 희망이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릅니다.

### 그림 묵상

#### 십자가 사랑하기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마태 16,24,26)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기 위해 어둠과 죄의 유혹에 맞서야 합니다. 자신 안에서 죽고 해방되기 위해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동반되는 십자가는 우리를 더 의미있게 하고 값지게 합니다.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로로팔수도회

제 1 독서 :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20,7-9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저육만 되었습니다.>



◎ 주님, 저의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

○ 하느님,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는 새벽부터 당신을 찾나이다.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 물기 없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이 몸은 당신을 애타게 그리나이다. ◎

○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성소에서 당신을 바라보나이다. 당신 자애가 생명보다 낫기에, 제 입술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

○ 이렇듯 제 한평생 당신을 찬미하고, 당신 이름 부르며 두 손 높이 올리오리다. 제 영혼이 기름진 음식으로 배불러, 제 입술이 환호하며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

○ 정녕 당신은 저를 도우셨으니, 당신 날개 그늘에서 환호하나이다. 제 영혼 당신께 매달리오면, 당신 오른손이 저를 붙드나이다. ◎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12,1-2  
<여러분의 몸을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 알렐루야.

복 음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6,21-27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려야 한다.>



### “사탄아, 물러가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마태 16,16)라는 질문에 시몬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하여 “스승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서는 처음으로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다 지도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가 사흘날에 되살아나야 한다는 사실을 밝히기 시작하십니다.

이제껏 많은 병자를 고쳐주며, 빵도 많게 하여 배고픈 이들을 먹이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당황해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하던, 아니 전혀 바라지 않던 방식의 하느님의 계획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고통, 죽음, 어려움을 없애 줌으로써 사람들을 편안하게 살도록 이끌어 주는 메시아가 아니라, 오늘 제1독서의 예레미야 예언자처럼 다른 이들의 조롱거리가 됨으로써 주님의 일을 이루게 되는 그런 메시아임이 드러난 것입니다.(예레 20,7-9)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베드로는 이번에도 제자들을 대표하여 예수님을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압사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 고백 뒤 처음으로 하느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밝히신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는 스스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아니, 오히려 하느님의 계획을 방해하며 나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런 베드로를 두고 “사탄”, 곧 유혹자라고 부르십니다. 당신께서 밝히신 하느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다른 길을 가도록 하는 “유혹자”라는 말입니다.

사실, 베드로의 주장이 전혀 이해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라면 당연히 메시아가 병도 고쳐주고, 가난도 없애 주며, 모든 억압을 풀어주는 분이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모든 것이 잘 되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길이 이와는 전혀 다른 길, 곧 고통과 수난, 죽음을 향한 길임을 밝히십니다. 세상 모든 이를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기 위해서는 당신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죽어야 한다

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역시 진정 구원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려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밝히십니다.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옳지 않다고, 자신이 따라야 할 길에 적합하지 않다고 반대합니다.

베드로의 반대가 예수님께는 큰 유혹으로 다가왔을 수 있습니다. 실제 예수님께서서는 마지막 순간에 같은 유혹을 느끼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하시며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이 저를 비켜 가게 해 주십시오”(마태 26,39)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이 길이 당신의 길임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에 기꺼이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당신께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혹을 물리치신 것은 이때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탄에게 처음 유혹 받으셨을 때도(마태 4,1-11), 사탄에게 “물러가라”라고 명하시며 유혹을 뿌리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동일한 유혹 앞에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명하십니다. 하지만 이번에 말씀하신 “물러가라”(휘파게)라는 표현 뒤에는 “내 뒤로”라는 뜻을 지닌 “오피소 무”라는 표현이 덧붙여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명령은 “떠나라”는 명령이 아니라, “내 뒤로 물러서라”는 명령이 됩니다. 사탄처럼 유혹으로 하느님의 일을 방해하지 말고, 그냥 당신 뒤로 물러서 있으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 뒤로 물러선다는 것은 예수님 뒤를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말합니다. 제2독서에서 사도 바오로가 이야기하듯이 우리 몸 전체를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로마 12,1)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이것만이 자신의 목숨을 진정 얻는 길임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이것만이 영원한 생명, 곧 하늘나라로 나아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 염철호 신부 | 부산가톨릭대학교 성서신학 교수



### 순교(殉教)

진리를 위한 헌신의 가장 두드러진 형태가 순교라고 할 하지요. ‘순교’란 신앙을 증거하기 위해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직면해 신앙의 의미와 진리를 가장 극적으로 증거하는 동시에 하나뿐인 생명을 바침으로써 육신을 죽이는 자를 초월하는 주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행위지요.

해방 이후 북한 지역의 교회는 순교자가 생겨나고 시설이 잇따라 폐쇄되는 등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6·25 전쟁무렵에 이르러 박해가 극심해지자 월남을 결심한 성직자와 수도자들은 38선과 가장 가까운 양양성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해인 수녀님의 「사랑의 길이 되어 떠나신 분」은 당시 양양분당 신부로 사목하다 원산에서 순교하신 이광재

디모테오(1909년~1950년) 신부님에 대한 시(詩)입니다. 신부님은 성직자, 수도자들의 탈출을 도우면서도 정작 자신은 교회를 지키다 체포되어 순교하셨습니다.

단 한 명의 신자를 위해서도 / 사제는 희생할 의무가 있다며/ 스스로 피 흘려 제물이 되신 신부님 ‘교회의 앞날을 위해 / 나보다 더 훌륭한 성직자 수도자를 /하나라도 더 구해야 한다’며 목숨을 걸고 / 그들의 월남길을 돕는 길잡이로 / 온갖 고초를 겪으시다가 / 마침내 체포되어 죽임을 당하신 분 / 감옥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으시고 / 어둠과 악취뿐인 방공호 속에서 / 총을 맞고 숨져 가는 최후의 순간까지 /자신보다 이웃을 더 많이 생각했던 / 당신은 진정 또 하나의 예수였습니다.

죽어 가는 동료들의 신음소리 들릴 때마다 / ‘응, 내가 가지요. 내가 도와 드리지요.’ / ‘물을 떠다 드릴 텐데 일어날 수가 없군요’하고 / 극심한 고통 중에도 이웃을 향해 / 사랑의 헛소리를 되풀이하셨던 신부님.

「사랑의 길이 되어 떠나신 분」 중 일부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생명을 바쳐 하느님과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의 모범을 따라 하느님과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사랑과 진리의 위대한 증거자입니다.(1요한 3,16 참조) 세상의 구원을 위해 기꺼이 죽음을 당하신 스승 예수님을 닮은 제자의 순교는 교회가 고백하는 최상의 은혜요 가장 큰 사랑의 증명입니다.(「교회 헌장」 42항) 그런 이유로 교회는 초기부터 지금까지 순교자를 공경하며 모든 성인의 통공 속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교의 의미를 기념하고 되새깁니다

유환민 마르첼리노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국



### 방향성

돌이 무슨 죄가 있을까 싶어요  
가만히 자기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돌 자체로는 아무 죄나 잘못이 없지  
하지만  
함께 걸던 이가  
갑자기 돌처럼  
내 앞에 누워버린다면  
그땐 문제가 되지요.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마태 16,23)



임의준 신부 (서울대교구 직장사목부 담당)